

광주대, 일자리센터 운영...취업·창업 명문 대학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2020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응시원서를 2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취업·창업중심 교육명문대학'을 표방한 광주대의 정시모집은 인터넷(www.gwangju.ac.kr)을 통해 가능하며, 가군 5명과 나군 22명을 모집한다. 합격자는 2020년 1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모집인원은 학교 홈페이지 및 실시간 경쟁률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정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 100%이며, 신입생들은 수능 결과에 따라 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대폭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대는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 1과목) 평균 등급에 따라 최대 4년간 등록금 전액부터 입학 학기 등록금 25%까지, 학업 장려금은 최대 40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사회 배려 대상자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2분위 장학 수혜자들에게 해당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광주대는 신입생 전원이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와 광주 시내 전 지역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교육으로 학생 취업률 고공 행진

광주대는 고용노동부 등이 주축·주관해 발표한 '2019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가운데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신규 진입한 12개 대학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호남지역 대학 중에는 1등을 차지하며 실무 교육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광주대는 '가족회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에게 인턴 및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가족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현재까지 115개 기업이 광주대 '가족회사'로 가입돼 제조업과 디자인, 미용, 부동산,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또 올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교육 및 기술교류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현장견학 및 실습 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효과 '특목'

광주대는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 특화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부터 적성·전공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 학년별 맞춤형 지원, 전공별 커리어로드맵 등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전체 학부(과)에 취업담당 교수를 배치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재학생·졸업생의 취업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대는 다양한 국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실습·취업 연계 통합 지원 '취업에 강한 대학' 선정

가족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 취업 프로그램 우수

정시모집 26~31일 홈페이지 접수...신입생 전원 기숙사 가능

지원, 일 경험, 직업능력개발지원, 창업지원, 해외 취업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적성검사 경진대회를 비롯해 취업준비생 합동 설명회, 기업탐방, 취업 선배 멘토링, 맞춤형 면접·입사지원서 작성 등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뷰티미용학과 정현영·정용아(4년) 학생과 사회복지학부 김하은(4년) 학생이 지난 10월 미국 크루즈 회사인 스타이너(Steiner)의 크루즈스와 뷰티테라피스트 채용면접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앞서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필리핀 현지 기업 인사담당자를 학교에 초청,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해 6명의 학생을 취업에 성공시켰다.

또한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해외취업 동아리 활동, 해외취업아카데미, 크루즈 해외취업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해 뷰티미용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외식조리학과가 '크루즈 융합전공'을 개설해 안정적인 크루즈분야의 해외 취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교류 통해 어학·교육 수행 '취업연계' 광주대가 취업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우수 해외대학의 융

합 전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교류협정을 맺은 중국과 베트남·일본 등 9개 대학에 학생들을 파견,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교류대학은 ▲중국 치치알대학 ▲중국 청도빈해대학 ▲중국 서안외국어대학 ▲중국 남양이공대학 ▲중국 SIAS대학 ▲베트남 흥방국제대학 ▲일본 고시엔대학 ▲일본 오이타대학 ▲일본 오테몬 카쿠인대학 등이다.

광주대는 우수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어학과 직무교육 과정을 제공한 뒤 취업까지 연계하는 멀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베트남 주요 대학, 고등학교, 교육청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일자리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는 지난 11월 남양 1 고등학교, 낮안그룹, 남안기술전문학교, 박양시 교육청을 방문해 ▲학생교류 및 교육·봉사 프로그램 공유 ▲MOU체결 일정 ▲한국문화 및 한국어 학생 지원 ▲해외봉사 파견 ▲국제어학당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하노이공업대학과 호치민 자연과학대학교, 호치민시 국제협력센터 등을 방문, 학생 및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협력도 했다. 이중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는 구체적인 MOU체결 관련 일정 등을 협의하고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 개최 등 한국 관련 행사에 광주대가

적극 지원에 나가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LINC+ 등 선정 '성장세 뚜렷' 광주대가 올 한해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취업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우수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안정적 취업 지표도 보여주는 유지취업률(정보공시 1차 기준)에서 2017년 90.3%, 2016년 90.8%, 2015년 91.9% 등 최근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입과 광주·전남지역 대학 유일 콘텐츠원캠퍼스 선정,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소프트웨어분야 최우수 대학 선정 등 발군의 성과를 거두며 창·융복합 인재양성에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대는 5개 분야의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사회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총 117억 원이 투입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5개 사회 맞춤형 학과를 선정해 실무 중심의 산업체 맞춤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광주대 김혁중 총장은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광주대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한발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외국인 유학생 무하마드 예셀 탁월한 연구성과로 교육부장관상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무하마드 예셀(Yeasir·사진) 아라파트 대학원생이 조선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중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대학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중 최우수자 1명에 선정,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출신인 조선대 대학원생 무하마드 예셀 아라파트(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모상만)은 최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된 '2019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학업성적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매년 12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상호간 교류는 물론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학업과 연구 업적이 탁월한 유학생들에게 교육부장관상 및 국립국제교육원상을 수여한다.

무하마드 예셀 아라파트 대학원생은 2016년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그해 9월부터 1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2017년 9월부터 컴퓨터공학과 모상만 교수의 지도 아래 무인비행체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안경광학과

안경사 실무능력인증제 36명 합격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가 실무 능력을 갖춘 안경사 양성소로 주목받고 있다.

동신대에 따르면 안경광학과는 최근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경업계와 저명한 전문가 14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제5회 안경사 실무능력인증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평가는 굴절검사, 양안시, 조제 및 가공 등 세 분야에 35명, 12명, 22명의 재학생이 응시해 17명(합격률 48.6%), 7명(58.3%), 12명(54.5%)이 합격해 총 36명이 대한안경사협회와 학과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인증서를 받았다.

안경사협회와 전문가들이 실력을 인정해 준 인증서인만큼 취업할 때 가점을 받거나 급여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동신대는 지난 2015년 안경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안경사 실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3개 분야 외에 콘택트렌즈 피팅(IACLE) 분야를 추가해 평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증 평가를 통해 재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극대화해 현장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동신대 안경광학과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기록하며 안경사 양성소 평가받고 있다. 2015년 100%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매년 82~96%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70%대에 머무는 전국 평균 합격률을 넘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